CS BEARING

PRESS RELEASE 배포일자: 19.11.12

씨에스베어링, 청약경쟁률 699.67대 1, 증거금 1조3,988억 원!

▶ 청약 경쟁률 699.67대 1 기록... 47만6,000주 모집에 총 3억3,304만2,270주 몰려

▶ 글로벌 풍력 산업을 선도할 풍력 베어링 전문 기업, 21일 코스닥 상장 예정

<2019-11-12> 씨에스베어링이 수요예측에 이어 일반 공모청약에서도 흥행에 성공했다.

글로벌 풍력 베어링 전문 기업 씨에스베어링(대표이사 조만제, 방성훈)은 11일~12일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을 진행한 결과 최종 청약 경쟁률 699.67대 1, 청약증거금 1조3,988억 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반공모 배정 물량 47만6,000주에 대해 총 3억3,304만2,270주 신청이 몰렸다.

회사는 앞서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인 8,400원에 확정한 바 있다.

상장 후 씨에스베어링은 베트남 공장 설립 및 글로벌 풍력 발전기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 성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베트남 생산기지는 높은 생산성과 압도적인 원가경쟁력으로 씨에스베어링의 본격 성장기를 열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씨에스베어링 방성훈 대표이사는 "씨에스베어링의 기업가치와 미래 성장성에 대해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투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IR에서 강조드렸듯 풍력 베어링에 집중된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No.1 풍력 베어링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씨에스베어링은 오는 14일 납입을 거쳐 11월 21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예정이다.

한편 씨에스베어링은 풍력 발전기의 '관절'로 일컬어지는 요·피치 베어링 전문 개발, 제조 기업이다. 글로벌 풍력 발전기 업체 GE의 파트너로 공급 물량을 꾸준히 확대해왔으며 올해 지멘스가메사에 공급을 시작해 가파른 성장을 예고한 바 있다.